

2026. 3. 20.(금) 석간용

이 보도 자료는 2026년 3월 20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 부서: 정원도시국 조경과

조경과장 온수진 02-2133-2101

정원조성팀장 김승렬 02-2133-2107

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 4쪽

관련 누리집 (메뉴) <http://parks.seoul.go.kr>

서울시-디올,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업동행정원 조성 업무협약

- 서울시-디올,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업동행정원’ 조성 위해 맞손
- 보라매(25년)부터 서울숲(26년)까지, 디올의 감각으로 잇는 정원 스토리 연출
- 주제 ‘Seoul, Green Culture’와 프렌치 감성의 만남, 사계절 ‘런웨이’ 정원 기대

서울시는 크리스찬디올꾸뛰르코리아(이하 ‘디올’)와 5월 1일 개막하는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3월 19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기업동행정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협약식에는 정경옥 디올 전무,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이 참석했다.
- 이번 협약은 민관 협력을 통해 기업의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자발적인 탄소중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디올은 이번 박람회에서 서울숲 북측편 외곽 메인 산책로에 기업동행정원을 조성한다. 특히 2025년 보라매공원에 이어 서울시와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추며 연속성 있는 정원 스토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 우리나라 1세대 조경가인 정영선 대표가 이끄는 조경설계 서안(주)에서 설계를 맡아, 25년 보라매공원에서 보여준 프렌치 디자인 감성을 서울숲

에서 더욱 깊이 있게 구현한다.

- 이번 디올정원은 프랑스 그랑빌 정원의 낭만을 박람회 주제인 ‘Seoul, Green Culture’에 맞춰 서울의 야생화와 계절감으로 재해석했다. 특히 ‘그랑 팔레’의 철제 구조미를 살린 아치 길을 조성해, 정원을 걷는 시민들이 마치 패션쇼 런웨이의 주인공이 된 듯한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 봄에는 화려한 식재 경관, 여름에는 시원한 색감 테마, 가을에는 아늑한 정취, 겨울에는 정원의 구조를 이루는 상록수와 그래스류가 남아 일 년 내내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할 계획이다.
-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연속으로 정원박람회에 참여해 스토리를 이어가는 기업의 진정성이 이번 박람회를 더욱 가치 있게 만들 것”이라며 “기업동행정원의 의미가 빛을 발하고, 시민들이 정원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6. 3. 19.(목) 협약식

(왼쪽부터 정경옥 크리스찬디올꾸뛰르코리아 전무,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

|Q1| 기업동행정원을 조성하는 기업은 어떻게 선정됐는지?

- ◆ 2015년부터 개최해오던 박람회를 국제적인 규모로 추진하기 위해 2024년부터 서울국제정원박람회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 ESG 경영과 사회공헌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진 기업들이 정원 조성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뜻으로 정원조성 의사를 서울시로 전달하였으며 세부 협의를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Q2| 기업동행정원 조성 추진 방법은?

- ◆ 서울시와 기업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에 규정된 상호 역할을 수행하여 추진합니다.
 - (서울시) 사업에 대한 기획 및 홍보 지원, 장소제공, 인수 후 유지관리 등
 - (기업) 정원의 설계 및 시공, 홍보, 재정지원 등

|Q3| 향후 유지관리는?

- ◆ 서울시와 기업간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 서울시로 소유권이 이관되며,
- ◆ 이후 서울시에서 유지관리를 시행합니다.